



■ 서울 거주 美유학생 제주여행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

도착날 의심 증상... 4박5일 곳곳 방문

여행중 아파 의원서 진료 귀경 후 선별진료소 찾아 모친도 어제 확진판정 받아 자가격리·입장 폐쇄 속출도, 접촉자 100명쯤 예상 해외방문 입도객 예의주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미국 모대학 유학생이 방문했던 제주도 봉개동의 한 마트가 26일 문을 닫고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이상국기자

정부의 '특별입국절차' 시행 이전 입국한 뒤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간 제주를 여행한 뒤 다음날인 25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19·여)씨는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가 입국한 시기는 정부의 특별입국절차 시행(19일) 나흘 전으로, 당시에는 코로나19 검사 등 방역조치를 받지 않아도 됐다. 제주도가 해외방문 이력 입도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입도절차'도 24일부터 시

작돼 A씨가 제주로 오는데는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제주 여행 당시 렌터카를 이용해 제주도 애월읍에 있는 디저트 카페와 제주도 일도2동 국수집,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한 카페, 우도, 표선면 소재 병원 등 20곳을 돌아다녔다. 현재 A씨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된 인원은 현재 47명으로 확인됐지

만, 우도 도항선 탑승 승객 등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제주도는 접촉자가 1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A씨가 20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으며, 23일에는 표선면 소재 병원까지 방문했지만 정작 선별진료소는 찾지 않고 무리하게 관광에 나선 부분도 접촉자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공교롭게도 A씨는 서울로 돌아간 후에는 곧바로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이 밖에도 스페인을 다녀온 뒤 나란히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5번(20대 여성·경기도), 6번(30대 남성·미국) 확진자도 특별입국절차 하루 전인 18일 입국하면서 A씨처럼 이동이 자유로웠다. 반면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제주 7번 확진자(26·여·제주)의 경우는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이후 입국(24일)하면서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 이전에 들어온 경우에 대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자서비스를 통해 해외방문 이력자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하고,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14일간 외출자제 등 자율격리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여행에 나선 A씨의 모친도 26일 낮 12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외부인 출입금지 합니다" 빗꽃이 만개한 대학캠퍼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자 26일 제주대학교가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강희만기자

제주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 가동

올해말까지 대대적 단속 'n번방' 도민 연루도 수사

제주경찰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우철문 차장을 단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IT 기업과의 공조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이 확인되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익금을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다. 또 'n번방' 범죄에 제주지역 연루자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 전담하고 있다. 한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는 모두 223건의 디지털 성범죄(제작·유통·유포·활용·공인전시·소지 등)가 발생했다. 특히 아동음란물 성범죄는 2015년, 2016년 각 1건, 2017년 7건, 2018년 9건, 2019년 19건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이상민기자

그녀는 발열검사 피했으나, 못 받았나...

투숙한 리조트 2곳 고객 대상 발열검사 진행 발열감시 카메라 시야 벗어나 제약없이 다녀



코로나19 확진자가 투숙해 진입통제 안내문이 설치돼 있는 한화리조트. 이상국기자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어긴 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상태로 제주 여행을 한 미국 유학생 확진자 A(19·여)씨는 도내 대형 리조트 2곳에 투숙할 때 한 번도 발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리조트들은 고객을 상대로 발열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때만 투숙을 허락하고 있지만 A씨는 발열 검사를 모두 빗겨갔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어머니, 지인과 함께 지난 20일 제주에 왔다.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부터 오한,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비춰볼 때 증상은 이 때부터 발현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추정하

고 있다. 방역 당국이 공개한 동선에 따르면 A씨는 20일 오후 5시 제주도 회천동 제주한화리조트에 도착했다. 리조트 측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프런트(호텔 또는 리조트 현관 계산대)에서 체온계로 고객의 체온을 측정해 37.5℃ 이상일 땐 투숙을 금지하고 있지만, A씨는 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 A씨는 이틀간 이 리조트에서 숙박한 뒤 22일 오전 11시30분쯤 퇴실했다. 제주한화리조트 관계자는 "발열 검사는 프런트를 찾은 고객에 한해서만 진행된다"면서 "(프런트에서 이뤄지는) 체온계와 체크 아웃은 모두 A씨의 어머니가 했고, A씨는 (체크인·아웃을 할 당시에) 차 안에만

있어 발열 검사를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22일 오후 3시쯤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리조트&호텔에 투숙할 때도 발열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 업체 관계자는 프런트 쪽에 직원 1명과 발열 감시 카메라를 배치해 고객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있지만 A씨는 투숙하는 내내 프런트 쪽에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가 발열 감시 카메라 '사각 지대'로 입장했고 리조트를 돌아다닐 때도 카메라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뜻이다. 이 업체는 리조트와 호

텔 등 2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A씨는 리조트에 투숙했다. 현재로서는 언론에 공개된 A씨의 진술이 제한적이라 A씨가 제주여행을 망칠까봐 의도적으로 발열 검사를 피했는지, 아니면 우연히 발열 검사에서 비껴간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해비치리조트 관계자는 "모든 고객이 드나드는 리조트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했다"며 "아파트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다만 서비스업 특성상 이런 방식으로 검사를 하면 고객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리조트에 머물 때 해열제를 달라거나, 열이 난다는 등 발열 증세를 호소한 적이 없다"면서 "발열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투숙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비치리조트&호텔은 오는 31일까지 임시 휴업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역 지침상 이번 주말부터는 개장이 가능하지만 고객 안전 확보 차원에서 임시 휴업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상민기자

마스크 판매사기 잇따라 구속기소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빚어진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사기를 저지른 3명이 구속기소 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A(2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인

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입금하면 KF94 마스크를 택배로 바로 발송하겠다'고 속여 모두 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20)씨와 C(38·여)씨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5명에게 3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러시아 국적 절도범 실행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가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의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

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9시48분쯤 제주시의 한 건물에 침입해 현금 47만원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1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탱자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골 신품종 분양

유라실생(노지, 하우스) 정상착과시 전혀부피파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지관망 일만원 판매) 의심되는분은 전화주시면 노지 하우스재배 하는 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감류	레드향(무독) · 천혜향(무독) 한라봉 · 황금향 · 미니향 아마나스 · 제라몬(레몬)
조생	유라실생 · 궁천(궁천번이지) 하례 조생 · 히로시마 7호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골(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번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골묘목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1,2,5년생
* 궁천 번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